

“함께한 음악 인생 더 바랄 것 없죠”

클론,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위 아’(We Are) 29일 발표

멤버 구준엽 10년간 매진한 EDM 장르 “가장 클론 다운 곡”

“들뜬다기보다, 그냥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난 2005년 클론(강원래·구준엽, 이상 48)이 5집으로 컴백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까칠해 보였던 강원래는 아들 ‘선’이처럼 바가지 머리로 잘랐으며 눈꼬리가 처진 정도로 밝았고, 평소 차분한 구준엽도 손수 만든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장르로 새 앨범을 채웠다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다.

클론이 5집 이후 12년 만에 데뷔 20주년을 기념한 앨범 ‘위 아’(We Are)를 29일 발표한다. 에일리가 피쳐링한 선공개곡 ‘밥다라리라’와 타이틀곡 ‘에브리바디’(EVERYBODY) 등 신곡 3곡과 히트곡 ‘초련’과 ‘난’의 리믹스 버전이 새로운 제목으로 실렸다. ‘뽕뽕한’ 전자 사운드가 강하게 귀를 때리며 기분을 ‘업’ 시키는 통일성이 뚜렷하다.

1996년 1집 ‘아 유 레디?’(Are You Ready?)로 데뷔한 이들은 ‘꿈따리 사바라’, ‘난’, ‘도시 탈출’, ‘돌아와’, ‘초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대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한류 스타로 떠올랐지만 비운의 팀으로 사라질 뻔했다. 2000년 강원래가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허반신이 마비되며 활동이 중단된 것. ‘출근’들이 모여 댄스음악을 무기로 성공한 팀이었기에 절망은 더욱 컸다.

그러나 두 사람은 팀을 해체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강원래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구준엽은 ‘DJ쿠’란 예명으로 10년간 EDM 장르에 매진하며 ‘한 우물’을 팔았다.

강원래는 “한때는 자살도 생각했으니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꼈다”며 “클론의 데뷔 20주년을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잘 버텨왔구나’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구준엽도 “난 클론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계속 EDM으로 특화된 우리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었다.

“김창환 형과 20주년이니 뭔가를 해보려고 얘기만 오갔다. 그러다가 준엽이가 만들어준 EDM 트랙을 듣고 놀랐다. 창환이 형이 ‘클론으로 내년 딱이네’라고 얘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강원래의 말에 구준엽은 “우리가 ‘현진영과 외와’의 ‘외와’ 출신이고 내가 디자인을 전공해 ‘안무를 짜라’, ‘재킷 디자인을 하라’고는 했지만, 창환이 형이 ‘너희가 음악을 만들라’고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음악을 음식에 비유하면, 우리 그때 자장면이 맛있는 것은 알지만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이 만든 신곡들은 어떤 스타일일까.

“1990년대 댄스음악이 아니라 지금의 댄스음악을 클론이 하는 것이다. 주로 젊은층이 EDM을 즐기지만 쉽고 중독성이 강해 우리 또래도 공감해 줄 것 같다. 내가 DJ를 하면서 EDM에 매진한 지 딱 10년이다. 트랙을 만들고자 미디어와 피아노를 배우는 등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한국어 가사가 EDM에 이질감 없이 잘 묻도록 신경 썼고 사운드도 외국 EDM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10년간의 노력을 쏟아부어 감회가 새롭다. (구준엽) 인기 절정에서 강원래 씨의 사고로 팀 활동이 멈춰 섰다. 크게 좌절했을 텐데 원래 씨는 장애인예술인 공연단 ‘꿈따리유랑단’을 꾸렸고 라디오 진행을 하고 지난해에는 경향담을 담은 장애인 인권 영화 ‘엘리베이터’ 연출도 했다.

“난 활동적인 사람인데 가만있으니 더 아팠다. ‘움직이자, 움직이자’고 되뇌었다. 뼈저리게 느낀 것은 ‘빠른 포기가 새로운 꿈을 준다는 것’이었다.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택한 직업이 라디오 DJ로, 책도 읽고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어주게 됐다. 또 ‘천재가 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용기를 주며 영화 등 옛날부터 하고 싶던 것들을 다 해보려고 생각했다. 이번 앨범도 11년째 하는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나도 열심히 산다’고 좀 더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꿈에 대한 특강을 할 때 ‘난 꿈을 꾸고 있다. 영화 연출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클론으로 복귀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 이뤄졌다..”(강원래)

역시 다른 길을 택한 구준엽도 지금은 EDM 분야를 주름잡는 DJ로 성공했다.

“클론으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지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못하니 솔로로 나올 수도 없어 다른 형태로 음악을 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댄스음악을 워낙 좋아해 내가 춤을 안 춰도 사

람들을 춤추게 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 DJ를 시작했다. 외국 DJ를 보면서 트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작곡을 배웠다. 이번 앨범을 시발점으로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악계의 새로운 신(S-cene)을 만들어보고 싶은 꿈도 쫓는다.”(구준엽)

연합뉴스



▲구준엽
◀강원래



영화 ‘미이라’ 200만 관객 돌파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이라’가 주말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UPI코리아에 따르면 ‘미이라’는 개봉 6일째인 11일 오전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이며, 올해 최단 200만 돌파 기록을 세운 한국영화 ‘더 킹’(6일)과는 타이 기록이다.

‘미이라’는 전날 하루 48만3420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52.7%에 이른다.

11일 오전 실시간 예매율도 40.4%로 압

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미이라’는 사막 한가운데서 고대 이집트 미라의 무덤을 발견한 닉(톰 크루즈 분)과 수천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이집트 아나네트 공주(소피아 부탈라 분)와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미이라’는 톰 크루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북미에서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북미 전 지역의 4035개 상영관에서 개봉했으나 1200만 달러(약 135억 원)를 벌어들인 데 그쳤다.

연합뉴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윤여정·이병헌 출연

크랭크 인 ... 내년 개봉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가제)이 이병헌, 윤여정 등 배우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첫 촬영에 들어갔다.

제작사 JK필름에 따르면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감 복싱선수 조하가 인생에서 지었던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이 한때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잊힌 채 자존심만 남은 복싱 선수 조하 역을 맡았다. ...

지체장애가 있지만 피아노에 천재적 재능을 지닌 동생 진태 역은 영화 ‘동주’(2016)로 각종 시상식의 신인남우상을 휩쓸었던 배우 박정민이 연기한다.

이들 사람이 남다른 조하와 진태의 엄마 인숙 역은 배우 윤여정이 맡아 이병헌-박정민과 묘자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윤여정 이병헌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 채 자취를 감춘 최고의 피아니스트 가을 역은 한지민이 맡았으며, 진태와 인숙 묘자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 홍마담 역에는 김성령이 캐스팅됐다. 이 작품은 ‘역린’의 각본을 집필한 최성현 씨의 감독 데뷔작으로, 2018년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0 2017 메이저리그 유원진 선발경기 (신시내티 vs LAC다저스)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레이트 지리산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숨터 55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파워배틀 와이자 (재)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2	45 101세의 프로젝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50 뉴스브리핑
3	15 취재파일 K 55 감성투고합시다(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15 별별머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45 날씨의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불로코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0	00 가요무대	00 쌤. 마이웨이	00 태마기행길	10 초인가족 2017
11	00 KBS 뉴스 40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특집다큐 (변화하는 부탄, 그곳에 가다)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태마기행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디아더리 45 스포츠특선	20 나이트라인 50 고향전문록 스페셜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민속스포츠 - 태극 남부 소싸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임흥림의 나마스네 내말 1부 -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는 길 칸헨중>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20 우주탐험가 셋	21:30 한국기행 <아웃도어 인생 천천히 가만 볼 수 있지>
06:20 세계테마기행 <일본과 도리지생태>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큐 프리덤 <가족의 방패, 사자 아빠>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일타와 도리지생태>	15:45 코코콩 3	22:45 엄마를 찾지만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두다다쿵(재)	23:35 까칠남녀
07:45 출동! 슈퍼핑크 - 한국에 신다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2:40 평등채널(재)	17:15 얼마 깨트리	24:3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6부>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5월 18일 庚午)

子	48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60년생 중요한 수단을 획득하거나 계기를 마련하는 기쁨이 보일 것이다. 72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이치이다. 84년생 맞부딪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39, 23	午	42년생 실제로 접해봐야 의미가 있다. 54년생 실의가 없다면 아예 다룰 필요조차 없다. 66년생 맞장구를 쳐 주는 것도 괜찮다. 78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징후는 현상을 동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7, 67
丑	49년생 현안의 특수성까지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반복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73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85년생 객관적인 인식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24, 93	未	43년생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55년생 전제의 특색을 파악하고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67년생 지금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뒤를 얹는 길이다. 79년생 희망의 아침이 밝아 오니 즐겁게 맞이하라. 91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19, 69
寅	50년생 공과 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작은 징후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 주시하라. 74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부딪쳐야만 승산이 있다. 86년생 판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3, 15	申	44년생 현황처럼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56년생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68년생 다시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80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64, 16
卯	51년생 적극적으로 행하라. 63년생 실제적이고 유익해야만 의미가 있다. 75년생 아차 하면 간발의 차이로써 아쉬워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7년생 여태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바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다. 행운의 숫자 : 45, 14	酉	45년생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판나이다. 57년생 작은 노력에도 결실이 쉽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따른다. 69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81년생 시작만 하여도 절반의 성공은 담보한 셈이다. 행운의 숫자 : 40, 78
辰	52년생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면이 보이므로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변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76년생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는 법이다. 88년생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39, 04	戌	46년생 반작용의 현상에 순간적으로 놀랄 수도 있다. 58년생 일시적인 현상과 빛깔에 현혹되지 마라. 70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한국이다. 82년생 길성이 흥행하므로 경사가 따를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86
巳	53년생 웅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5년생 지층은 투자가 될 것이나 아껴워하지 마라. 77년생 흥결이 발생하지만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89년생 숙명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이 뒤따른다. 행운의 숫자 : 20, 88	亥	47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더라도 정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그다지 함들이고 차지하게 된다. 71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83년생 과신하다 보면 소용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8, 5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